지역 상장기업 외국인 투자 늘었다

지난해 국내증시가 사상 최고의 '랠리'를 지속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은 금호산업 등 실적이 뚜렷한 지역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지분을 74%이상 늘리면서 수익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남겼다.

다만 광주·전남은 시가총액과 외국인 지분 증가세가 여전히 일부 법인에만 집중돼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호산업 등 전체 지분 74% 이상 늘려

작년 26개 회사 30종목 시총 5조9천억

7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26개사 30종목)의 시가총액은 5조9천870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2006년(3조6천450억원)에 비해 64.3%(2조3천4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지역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법인별로는 금호산업의 시가총액이 2조2천992억원으로, 1년새 126.9%(1조2천857억원)나 증가했다. 화인케미칼과 조선내화도 각각 678.8%(2천274억원), 90.4%(1천880억원)의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법인은 외국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외국인보유액은 7천282억원으로, 1년새 74.3%(3천104억원)나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 외국인보유액 증가율(19.4%)에 비해 54.9%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지분이 급증한 것은 국내 증시의 꾸준한 상승세에 힘입어 외국인들이 지역 주축 법인을 중심으로 대거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역에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가장 큰 금호산업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보유 비중이 15.1%로, 1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보유액이 2천727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광주·전남 전체 법인의 외국인 지분 증가액의 87.9%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일부 기업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호산업은 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 1년새 외국인보유액이 3천1억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전체 증가액의 96.7%를 차지했다.

이밖에 화인케미칼(452억원)과 해원에스티(93억원) 등도 외국인보유액이 늘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이들 종목은 실적 개선을 재료로 지난해 주가 및 주가총액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의 경우 조선내화만 시가총액이 90.4% 늘었을 뿐, 엠앤에스(-26.5%), 광주신세계(-11.4%), 셀런(-6.7%) 등은 모두 총액이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 '모하비' 홍보대사 강지원 변호사

기아차 위촉 … 1호차 전달도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기아차가 지난 3일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모하비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기아차는 7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김충호(사진 왼쪽) 국내영업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모하비 1호차를 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모하비는 기아차가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집약해 개발한 최고급 대형 SUV로 올 한해 내수 1만8천대, 수출 3만대 등 총 4만8천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에게 전달된 모하비는 KV300 최고급 모델로 DVD 네비게이션, 전복감지 커튼에어백, 버튼식 시동장치, 차체자세 제어장치 등 최첨단 편의사양이 적용된 모델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계약을 시작한 모하비는 4일까지 이틀 간 1천78대가 계약돼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이달 말까지 총 2천500대 이상의 계약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 디자인인재 체계적 육성

광주디자인센터 '멤버십 제도' 올부터 시행

광주디자인센터가 정부의 지원아래 지역 디자인인재 육성에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7일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디자인 우수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재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디자인 분야 우수인재를 선발, 양성하는 3년 과정의 '지역 디자인 멤버십'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을 전공한 지역대학생 가운데 매년 20여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이들에게 컴퓨터와 프린터·스캐너 등 장비가 갖춰진 창작공간을 제공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초청특강, 함께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기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가 수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광주 외에 부산·대구 등이 참여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연간 2억원선의 직접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인력과 장비·교육공간 등 현물지원을 중심으로 국고지원액의 50%를 부담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겨울방학 경제캠프'

한은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8일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경제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차(8~10일)와 2차(15~17일) 등 각각 사흘간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9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노하우'와 '영화로 보는 경제이야기' 등 다향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또 ▲중앙은행의 역할 ▲청소년의 신용관리 ▲경제골든벨 등의 경제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은행 업무현장 및 기아차광주공장 견학 등도 마련돼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 中企 2천억 지원

광주시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천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7일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천3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2천억원의 지원금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500억원의 구조 고도화 자금을 투여해 중소기업의 생산· 서비스 기반 고도화와 경영 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력과 사업성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고 신용상태가 좋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업주들을 대상으로 총 59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년형 하우젠 에어컨 출시 업계 최초로 전면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한 삼성전자의 2008년형 하우젠 에어컨 신제품 '바람의 여신Ⅱ'가 7일 첫선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오는 14일부터 3월말까지 예약판매한다. 〈삼성전자 제공〉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받아 가세요"

농협전남본부 16일까지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농업인이 지난해 4·4분기중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3·4분기중 신청 누락분이 있을 경우 이번에 포함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과 화훼용 종자류, 채소재배용 차광망 등이다.

전남농협은 2004년 74억원, 2005년 81억원, 2006년 96억원을 농업인들에게 환급했으며 2007년분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쌀 단백질 함량 보고 사세요

내달 포장 표시항목 추가

다음달부터는 소비자들도 쌀을 고를 때 단백질 함량이나 품종순도 등 상세한 품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7일 쌀 포장시 권장 표시사항에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품질항목을 추가토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품목·생산년도·중량 등 의무표시 사항 외에 '특', '1'과 같은 등급을 권장표시 항목에서 밝혀왔으나, 등급이 주로 쌀의 외관상태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쌀의 품질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림부에 따르면 쌀에 단백질이 많을수록 밥의 찰기와 질감이 떨어진다.

■쌀 품질 표시항목 기준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6.0%이하	96.0%이상	90%이상
6.1%~6.5%	93.0%~95.6%	85%~89%
6.6%이상	92.9%이하	84%이하

따라서 단백질 함량의 경우 '6.0%이하'로 표시된 쌀이 가장 좋은 품질이다.

품종 순도는 높을수록 좋다. 서로 다른 품종을 많이 섞어 벼를 키우면, 품종별로 익는 시기와 기간이 달라 한꺼번에 수확할 경우 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새 표시제도에서는 품종순도를 '90%이상', '85~89%', '84%이하'로 나눠 밝히도록 했다.

완전립 비율이란 싸라기 등 비정상적 쌀을 빼고 형태가 정상적인 쌀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므로 높을수록 고급이다. /연합뉴스